

제121차 이사회 의사록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일 자	2017. 3. 22 (수) 16:00	기록자	정 문 상
장 소	세종문화회관		
재적이사	총 13 명		
출석이사	9 명	불참 4 명	
참 여 자	감사 1 명		

○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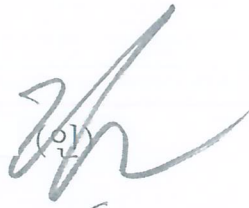
의안번호	건 명	의 결 내 용
제336호	2016년도 18기 회계결산(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3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제338호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의결 (원안) · 수정 · 보류 · 부결

○ 회의결과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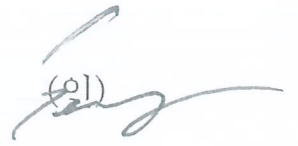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17년 3월 22일

이사장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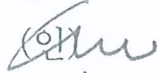
(인) 

이사 송

(인) 

상임이사

이승엽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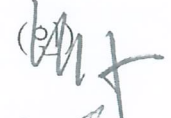
이사 안

(인)

이사 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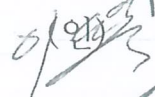
이사 이

(인) 

이사 권

(인)


이사 이

(인) 

이사 김

(인)

이사 최

(인) 

이사 김

(인) 

감사 최

(인) 

이사 박

(인)

이사 성

(인) 

세종문화회관 「제121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3 22(수) 16:00~17:11
- ◆ 장 소 : 회의실(사무동 4층)
- ◆ 참 석 : 10명(이사장 및 이사 9, 감사1)
이사장-김00, 이사-이00, 고00, 김00, 성00, 송00, 이00,
이00, 최00, 감사-최00
- ◆ 안 건
 - 제336호 2016년도 18기 회계결산(안)
 - 제33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 제338호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 ◆ 보고사항
 - 제120차(서면결의) 이사회 결과보고
 - 2017년 이사회 운영계획

I 성원보고

- 재적이사 13명중 이사 9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

II 의안심의

□ 제336호 2016년도 18기 회계결산(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자산은 대관료 선수금 1,100백만원 등의 감소요인으로 당좌자산이 506백만원이 줄었고, 감가상각비 등의 감소요인으로 비유동자산이 1,484백만원이 줄어 지난해 보다 2,054백만원이 감소한 19,983백만원

- 부채는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1,043백만원 증가요인 등으로 전년대비 568백만원 증가한 14,466백만원
- 자본은 지난해대비 당기순손실 2,622백만원 만큼 감소하여 5,517백만원
- 사업수익은 자체공연 수입증가, 임대수입 및 돈화문국악당 운영에 따른 서울시출연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219백 만원이 증가한 49,502백만원
- 사업비용은 정기공연 사업비 등은 증가하였고, 메르스에 따른 시민공연 등의 감소 요인으로 전년대비 35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운영비는 지급수수료 및 시설관리비의 증가로 1,00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비용은 52,537백만원
-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따른 사업손실은 3,035백만원이고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을 감안한 당기 순손실은 전년대비 1,875백원이 감소한 2,621백만원

② 의사발언 요지

- 이사 이00
 - 이익잉여금이 계속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명 요청
- 사장 이승엽
 - 세종문화회관이 4년째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폭이 2016년도에 가장 적음. 그러나 감소폭이 적은 이유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므로 수익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임

③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 제337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세입은 예산액 43,655백만원 대비 달성율 885%인 38,637백만원
 - 세입은 예술단공연, 기획공연 등 공연사업으로 2,955백만원, 대관수익으로 4,065백만원 등 영업수익이 8,383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임대료수익 4,065백만원 등으로 4,856백만원
 - 출연금수익 23,856백만원 잉여금수익 1,542백만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3,655백만원 대비 집행율 854%인 37,260백만원
 - 세출은 예술단공연, 기획공연 등 공연사업으로 5,89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북서울꿈의숲 사업장운영비로 2,090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문화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10,075백만원
 - 인건비, 성과급 등 일반관리비로 27,185백만원
- 결산 수지율은(세입/세출×100) 1037%으로 수지차액은 1,37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1,416백만원으로 2017년도 잉여금예산으로 25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액은 1,166백만원(고유사업화된 북서울꿈의숲만 포함)

② 의사발언 요지

- 이사 이00
 -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 전체 수입달성률이 89%이며, 그중 시 출연금과 잉여금 외에 자체수입이 66%임
 -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입달성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된 것도 있으며, 수입이 전체적으로 34%가 미달됐음. 원인에 대해 설명 요청
- 사장 이승엽
 -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세출 예산 자체가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
 -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제도개선외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예산편성을 리빌딩하는 아젠다를 설정했고, 2017년도 예산부터 조금씩 바로 잡고 있음. 2017년도 예산에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집행에 가까워지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력하고 있는 과정임

○ 이사 이00

- 수입의 경우 공연사업 수입의 목표는 55억, 달성액은 29억으로 53%를 달성했는데, 지출에 있어 경상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성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밸런스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잉여금이 적어지고 순손실 발생하는 것임. 이것에 대한 설명 요청

○ 사장 이승엽

- 밸런스의 차이 즉 목표대비 수입달성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예술사업들, 특히 공연, 예술단공연이나 기획공연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사업이 확대되면 세입도 함께 편성하지만, 사업들이 성사되는 것에 반해 수입은 목표들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누적되기 때문임. 그러나 2017년에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음

○ 이사 고00

-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조정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공연수입과 공연비용에 대한 수지보존율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필요함
예술단의 경우 인건비는 별도 항목으로 빼놓고, 사업비에는 순수공연에 필요한 비용만 들어있는데, 그 차이가 세입 53%, 세출 82%로 큰 괴리율이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누적된 괴리라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연단들이 공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지가 떨어지는 지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음.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지율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 경영본부장 김웅겸

-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사업수지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순수예술의 경우에 수입달성율을 지출 집행율과 맞추기는 어려우므로 기부금, 대관수입, 임대료 수입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음

○ 이사 고00

- 수지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자는 것임
순수예술을 하는데 적절한 수지율 목표를 정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동의

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래야 적정 수지율에 대한 논의와 차년도 수지율 개선폭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경영진의 제시와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생각임

○ 이사 최00

- 순수 예술단들은 고용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서울시에서 조금 더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회의를 해서 예술단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수준 높은 공연도 할 수 있음.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공연을 해서는 시민들이 ‘아, 오페라단이 있다’ ‘무용단이 있다’ 수준이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음
세종문화회관은 산하에 순수 예술단들이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이사 성00

- 공연예술이라는 것은 순수예술이고 기초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뮤지컬이라든가, 발레와는 차원이 다름 서울시무용단의 무용은 한국무용 위주로 되어있고, 한국무용이 수입을 내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우리 무용사에서 서울시무용단이 창작을 선도하고, 그것을 트렌드화 해서 민간 예술단체까지 영향 미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서울시무용단이 2016년 <신시>에서 김주원 발레를 접목한 점과 같이 새롭고,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이 그 예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예술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무용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런 무형의 가치를 생각하고 서울시가 소신과 신념을 갖고 예산의 투입 등에 대한 문제는 유연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음

○ 이사 이00

- 세입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 달성이 불가능하게 과대 계상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음
세출에서 전체 372억을 집행했는데 그 중 무용이나 다른 9개의 예술단이 활동하는 실제 사업관련 비용은 예산액 대비 약 78%, 약 100억 정도

집행하고, 일반관리비는 271억으로 약 90% 가까이 집행을 하였음
이 자료만 본다면, 공연이나 사업들은 계획 대비 약 70%만 진행했고,
일반관리비 등 즉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실히 집행한 것
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술활동 부분들은 계획
대비 소외된 것처럼 보여질 소지가 충분히 있음

그리고 시가 출연금으로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나
문화적 자부심을 채워 가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라는 것들도 평가
가 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입장에서는 작년에 238억, 과거 5년 동안 매
년 약 220억 정도의 출연금을 세종문화회관에 투자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정부 지원금이 약 120억
남짓임. 그러면 예술의전당에 지원하는 것보다 연간 100억 이상을 서울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왔지만, 세종문화회관은 6년째 연속 적자가 발생함
으로써 투자출연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경영진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
경영진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냥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해
서 뭐가 문제고, 뭘 없애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조
건이 됐다는 것임. 그런 부분들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내부 임직원들이 경
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음

○ 이사 최00

- 세종문화회관에는 9개 단체가 전속단체로 있음

흔히 밖에서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을 비슷하게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예술의전당은 전속단체가 하나도 없고, 국립발레단 오페라
단도 상주단체로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별도 예산을 받고 있음. 그래서
국립발레단, 오페라단도 예술의전당에 대관료, 주차료, 사무실 임대료 등
을 다 내고 상주하고 있음

○ 이사 송00

-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진단의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예술단체의 경영진단을 일반 다른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곳과
같은 지표를 갖고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함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고, 거기에 적절한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다보면 전 세계에서 예술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국립극장들이 다 경영진단 대상일 것임

우선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한 컨셉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몇 백억씩 적자를 보더라도 순수예술을 키우는 요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중적인 예술의 장소로 가면서 수익도 낼 것인지에 대한 컨셉 정리를 먼저 하고, 경영지표도 컨셉에 맞도록 재설정해야 할 것임

향후 세종문화회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정확한 컨셉이 정리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듦

○ 이사 김00

- 대학을 경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음악대와 미술대에 대한 평가였음. 원인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음

음대하고 미대는 다른 지표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이 눈에 보이게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했으나 결과는 똑같았음

예술인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얻은 결과가 문화예술은 눈에 보이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었음

○ 이사 성00

- 세종문화회관은 9개의 산하 단체가 있고, 자료 통계에 나오다시피 산하 단체의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최근에 국립무용단이 6억을 투자한 ‘향연’이라는 작품은 대중성에서 성공을 거둔 작품이지만 언론이나 무용계 내부의 평가가 좋은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서울시의 어떤 소속단체도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받고 있지 않음

서울시의 산하 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예술적 Identity를 바로 세워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무형의 가치창출도 감안이 되어야 함

- 이사장 김00
 -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체 또는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서울시에 제안하신 적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사장 이승엽
 -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예술단의 평가지표가 들어있으나 각 개별 예술단의 평가는 아님
- 이사장 김00
 - 현재 예술단체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결과와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에 대한 설명 요청
- 사장 이승엽
 - 경영평가 결과로는 중간 정도임
- 이사장 김00
 - 평가와 관련해서는 예술인들은 예술을 경영으로 평가하지 말고 예술은 예술로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서울시예술단은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음
 - 그러나 서울시의 평가기준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요구하는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를 하는 주체는 세종문화회관을 평가하는 지표에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목표가 들어있어야 함
 - 세종문화회관은 전국에서 예술단의 종류와, 단원 규모면에서 가장 큰 산하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음. 이런 기관을 현재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것에 대한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합의가 필요함
 - 서울시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과 과거 국립극장 산하에 전속 단체로 있던 7개 단체 중 현재 4개 단체(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 극단)가 국립극장 산하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예산도 많이 받고, 발전을 많이 한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국립극장 산하에 있던 4개 단체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체육부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임
 - 서울시에서 ‘이 예술단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철학을 갖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 ‘우리가 이 9개 단체를 영원히 끌어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시향처럼 하나씩 하나씩 독

립시켜줄 것인가' 이런 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예술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잘하게 하려면 공연활동비를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받는 공연활동비 가지고서는 예술단은 활동할 수가 없음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경영에서 돈을 벌려면 예술활동은 줄이고 임대료와 주차료를 올려야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님

이사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예술단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9개 단체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진지하게 서울시가 해야 된다'라는 것임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체 평가지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해서 서울시와 합의를 해야함 최근 달성실적을 기준으로 조금씩 상향을 목표로 예술단체 및 단장과 합의를 해야하고 조금씩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사장 이승엽

- 세입·세출 예산결산 테이블을 보면 2가지 이슈가 혼동이 돼 있음

하나는 이 목표 대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둘째는 실제로 예술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수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2가지가 섞여있음. 결론적으로 적절한 목표설정, 그리고 그 목표설정애 따른 평가, 피드백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사님들 말씀에 공감하고, 서울시에서도 100을 지원했으면 100을 벌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므로 목표를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음

③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 제338호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순세계잉여금 1,417백만원중 2017년 잉여금 세입예산으로 기 편성된 250백만원을 제외한 잉여금 1,167백만원을 2017년도 예비비-내부유보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② 의사발언 요지

- 사장 이승엽
 - 본래 금년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 내부 점검 결과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그1차 목표를 2억5,000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는 것으로 수립하였음. 재정대책 시행 결과 일반관리비 등에서 추가 절감분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했고 그 차액인 11억6,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임 ※추가 의사발언 없음

③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Ⅲ 보고사항

1 제120차 이사회 회의 결과

① 안건 주요내용

- 제120차 이사회(서면결의)에 상정되었던 안건 제335호 2017년 세종문화회관 안전분야사업 외주 운영계획(안)과 관련,
 - 2016년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분야 외주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 세종문화회관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와 무대시설이 안전분야사업으로 선정되어 제120차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서면으로 의결을 받았음
 - 안건내용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23대와 무대설비, 전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외주화에 대해 안전대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③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

2 2017 이사회 운영 계획

① 안건 주요내용

- 2017년 세종문화회관 정기이사회는 오늘(2017322) 개최되는 2016년도 회계결산 및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와, 12월중에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로 개최 할 계획임
- 임시이사회는 2월에 안전분야사업 외주화 관련해서 1회 개최하였고, 향후 안전 발생 시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예정임

Ⅳ 폐회선언

- 안전에 여러 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표하고, 폐회 선언